

극장가 중년 여배우 파워 넘친다

이일화·배중옥·김희애·김완선 복귀

‘천화’ ‘환절기’ ‘흥부’ 등서 파격 변신

늦겨울 극장가에 중년 여배우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젊은 여배우들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만나기 쉽지 않은 요즘 영화계에서 당당히 주연을 꿰찼다. 비슷비슷한 캐릭터에서 벗어나 파격적 변신도 시도한다. 상영중인 영화 ‘천화’의 이일화(47)에게서 ‘덕신 엄마’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약작같은 엄마에서 신비로운 여인으로 변신했다. 이일화가 연기한 윤정은 제주도의 요양원에서 일하며 치매에 걸린 노인 문호(하용수 분)를 돌본다. 언제, 어떻게 제주도에 와서 왜 그 일을 하는지는 배일에 가려져 있다. 동네에는 그가 일본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윤정은 조금씩 되살아나는 문호의 기억을 통해 그의 인생을 가능하지만 무엇도 뚜렷하지 않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종류(양동근)가 윤정에게 매료돼 ‘소울 메이트’를 자칭하기도 한다. 민병국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모호함, 윤정이 부딪치는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논한다.

1991년 S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일화로서는 1994년 개봉한 ‘그리움엔 이유가 없다’ 이후 24년 만에 주연을 맡은 영화다. 실제 나이보다 열 살가량 어린 캐릭터를 맡아 흡연과 노출 등 파격 연기를 선보인다.

배중옥(54)은 영화 ‘환절기’로 돌아왔다. 요즘 한국영화에 보기 드문 중년 여성을 원톱으로 내세운 영화다. 평범한 엄마 미경(배중옥)과 그의 하나뿐인 아들 수현(지윤호), 아들의 친구 용준(이원근)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다.

배중옥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떨어져 홀로 아들을 키운다. 고3 아들 수현이 유일하게 집에 데려온 친구 용준을 친아들처럼 대해준다. 수현은 제대 후 용준과 떠난 여행길에서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고, 미경은 혼자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용준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수현과 용준이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을 안 뒤 용준 몰래 수현을 지방의 요양원으로 옮기고, 홀로 간호를 한다. 배중옥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면서 인생의 ‘환절기’를 맞는 중년 여성의 복잡한 심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배중옥은 “감정과 감정 사이, 인물과 인물 사이에 섬세하게 흐르는 심리 표현이 인상 깊은 사나리오였다”면서 “자기의 인생을 반추하고, 화해하는 여자의 모습이 지금 내 내이 토레 여성들이 겪는 갱년기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희애(51)는 다음달 개봉하는 ‘사라진 밤’으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세시봉’(2015) 이후 3년 만이다. 영화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체보관실에서 사라진 시체를 두고 벌어지는 추적 스릴러다.

아내의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완전범죄를 계획한 남편(김강우)과 그를 의심하는 형사(김상경), 김희애가 연기한 아내 윤설희는 이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미스터리한 핵심 인물이다. 김희애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법정투쟁 실화를 옮긴 ‘허스토리’에서도 주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민규동 감독이 연출한 ‘허스토리’는 지난해 연말 촬영을 마치고 올해 개봉 예정이다.

설 연휴에 개봉하는 영화 ‘흥부 : 글로 세상을 바꾼 자’에는 깜짝 놀랄 만한 얼굴이 나온다. 나이 어린 임금 현종을 대신해 나뭇잎을 하는 순원왕후로 김완선(49)이 특별출연한다. 처음엔 긴가민가하지만 눈빛이 영락없는 김완선이다.



◀ 위부터 이일화, 김희애 김완선, 배중옥

김완선은 2012년 케이체널 콩트쇼 ‘단단한 가족’을 시작으로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 카메오로 출연하는 등 간간히 연기를 해왔다. ‘흥부’에 앞서 제작된 촬영장 장면영화 ‘오즈 온 더 문’에서는 단독 주연을 맡았다. 10대에 데뷔해 화려한 시절을 거쳐 중년이 된 가수의 이야기로, 김완선의 자전적 요소가 많이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아직 후반작업 중으로 개봉시기는 미정이다.

‘흥부’와 ‘오즈 온 더 문’을 연출한 조권현 감독은 “‘오즈 온 더 문’에서 놀랄 정도로 연기를 잘해 ‘흥부’에도 캐스팅했다”며 “세련된 이미지의 가수가 사극 분장을 하고 화를 내는 장면이 관객이 오히려 어색해하는 것 같지만, ‘오즈 온 더 문’에선 누구나 다 아는 가수 김완선으로서 감정이입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국진-강수지 “5월에 결혼해요”

개그맨 김국진(53·왼쪽)과 가수 강수지(51)가 오는 5월 결혼한다.

김국진은 7일 SBS TV 예능 ‘불타는 청춘’에 출연, 결혼 시기에 대해 “5월”이라면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따로 예식은 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수지는 다른 출연진이 김국진에게 “5월이 강수지의 생일이 있는 달이라 그렇게 정했느냐”고 묻자 “어머님이 정해주셨다”고 대신 답했다. 프리포즈를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세 집으로 이사한 것과 관련, “(국진) 오빠는 5월에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5년 3월부터 ‘불타는 청춘’에 출연, 실례는 분위기를 연출해 ‘차와 커피’로 사랑받았으며 이듬해 8월 열애 사



실을 인정했다. 최근에는 김국진 측에서 “강수지와 결혼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1년 KBS 대학개그제로 데뷔한 김국진은 ‘불타는 청춘’과 MBC TV ‘황금어장-라디오스타’ 등에서 활약 중이다. 강수지는 1990년 1집 앨범 ‘보라빛 향기’로 데뷔해 청순 스타로 큰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동방신기’ 소속사 SM과 재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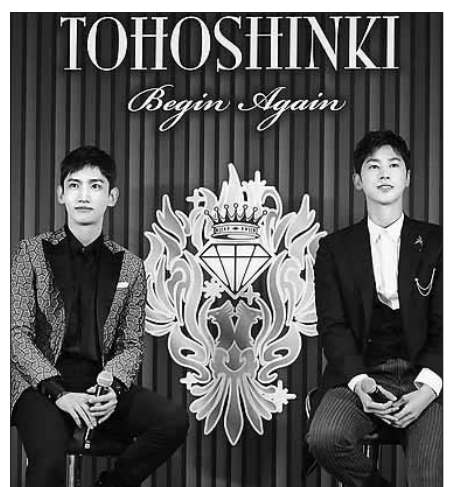
3월 컴백 앞둔

‘K팝 열풍’의 선두주자인 그룹 동방신기(유노윤호 32, 최강창민 30(사진))가 오는 3월 컴백을 앞두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했다.

6월 가요계에 따르면 2004년 SM에서 데뷔해 올해로 15년 차인 동방신기는 지난해 말 기존 계약종료시점에 앞서 재계약을 마쳤다.

한 가요 관계자는 “두 멤버가 제대 후 장기적인 활동과 미래 비전에 대해 SM과 논의했다”며 “요즘 다수 가수가 계약종료시점이 지날 때까지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는 데 반해 두 멤버는 SM과 신뢰를 바탕으로 빠르게 재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3월 제대 후 첫 앨범으로 국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두 멤버는 지난해 4월과 8월 잇달아 군 복무를 마친 뒤 그해 9월 SM 디지털 음원 채널 ‘스테이션’을 통해 솔로곡을 냈지만 1집 앨범을 내는 것은 2015년 7월 스페셜 앨범 ‘라이즈 애즈 갓’(RISE AS GOD)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스페셜 앨범 ‘파인 콜렉션 ~ Begin Again ~’(FINE COLLECTION ~ Begin Again ~)을 내고 오리콘 주간차트 1위에 올라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다 기록인 6번째 1위를 기록했다. 또 일본 5대 돔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는 6월 일본 공연 역사상 처음으로 닛산 스타디움에서 3일간 공연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2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아시아의 전통시장 스페셜	10 닥터 365 15 해피 시스터즈 55 평창 2018
9	00 평창올림픽 라이브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10		40 지구촌 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UHD 한식의 마음	00 흑기사 (재)	00 밤상 차리는 남자 (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4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	05 내 남자의 비밀 (재)	00 12 MBC 뉴스 20 밤상 차리는 남자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매카드		20 돈꽃 (재)	55 닥터 365
2	20 안녕! 과발개발 시즌2 50 UHD 특집 화산섬 오름꽃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35 똑? 똑! 키즈쿨	00 뉴스브리핑
3	10 특집다큐 황금 씨앗 전쟁 (재)	00 자동차부품산업 위기 2 30 TV유치원	05 에어로빅 35 도올스톱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평창, 나의 올림픽	00 겨울방학특선 생명탐사, 지구로의 여정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남도 지오그래피 30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생방송 평창	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놀 15 티빙매드 R 30 다큐멘터리 3일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성에 현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 1~2부 (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10 내 남자의 비밀 50 여기는 평창	15 전성에 현수들 55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 평창 2018
8	25 미워도 사랑해			
9	00 특집 KBS 뉴스9 50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하키드림 기적의 1승을 향해			
10	40 슈퍼 45 KBS 뉴스라인	00 흑기사	00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부
11	15 평창동계올림픽 특집다큐 막의 유혹, 도핑	10 해피투게더	00 MBC 스포셜	
12	05 특집다큐 오늘도 아근하시나요?	40 올림픽 특선 다큐 스포츠로 하나되는코리아 (재)	00 도올스톱 20 허하랜드 2 스페셜	15 나이트라인 45 2018 불꽃원정대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북한의 전자 제품)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덩동덩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수확이 아호 09:00 똑딱맨 09:15 두다다쿵 09:30 플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버섯크림스스 햄버그스테이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우리는 단박, 백발의 고부)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텔리핀 교도소 이완혁 이야기)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하러 삼국전 16:15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16:30 수확이 아호(재)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17:15 울림한 소령지 레이 17:30 똑딱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방탈출 미션-산장 탈출하라) 19:30 EBS 뉴스 19:50 위기청소년 자이언트 프로젝트 -나를 찾아 떠나는 길	20:40 다큐 오늘 (그 곳에 언제나, 엄마) 20:50 세계테마기행 (알프스에 살다 오스트리아 4부 남안산책 칠츠부르크) 21:30 한국기행 (겨울이던 그림자원 4부 섬마을에 가면 정드러) 21:50 과학 다큐 비온드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호모 이코노미쿠스 (천만 원을 향한 전력 질주) 24:05 지식채널e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8일(음 12월 23일 辛未)
子	48년생 가볍게 여긴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60년생 구별할 필요가 있다. 72년생 발상하지 말고 끝까지 합구하고 있어야 한다. 84년생 처음에 임할 때에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었지만 미리 알아 적응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47, 11	42년생 정도에 따른 편차가 대단히 크다. 54년생 거침없이 밀어붙여가다가 잡힐 것이다. 66년생 마음만으로는 아니 되니 언행으로써 표현해야 한다. 78년생 애초에 알고 있었던 바와 확인해 다를 수 있다. 90년생 신뢰를 얻으라. 행운의 숫자 : 45, 53
丑	49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즉시 배제하는 것이 좋다. 61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백 번 낫다. 73년생 중저대한 때에 번 겁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 85년생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면서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44, 28	43년생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리라. 55년생 아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67년생 오는 이 막지 말고 가는 이 잡지 말자. 79년생 파격적인 조치로 인한 이익이 광장하다. 91년생 목적을 저해하는 번거로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6, 21
寅	50년생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이다. 62년생 별것이 아니니 결코 놀랄 것까지는 없다. 74년생 어떻게 운 좋으나 따라서 결과의 규모가 달라지겠다. 86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낭패를 보게 될 수밖에 없으니 진중하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12, 37	44년생 평온하게 진행될 것이니 우려할 바는 아니다. 56년생 작은 것에 기쁨이 있는 법이니 소박함에 정성을 다하라. 68년생 힘 들어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하여 잘 될 것이다. 80년생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6, 30
卯	51년생 파격적인 시도가 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63년생 전체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확보하라. 75년생 병행하여 나아가도 무리가 없다. 87년생 아무리 애를 써도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서 중국적으로는 연결되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34, 95	45년생 더불어나아 갈수 있는 마당을 만들자. 57년생 겸손함과 검소함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69년생 중저대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기동력과 순발력이 시급하다. 81년생 용기 있는 이만이 행운을 잡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2, 98
辰	52년생 목적이식이 분명해야 자질이 빛이 지는 법이다. 64년생 발걸음이 가볍지 않겠다. 76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따르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88년생 천 날 빛도 말 한 마디로 갈을 수 있는 법이니 매사에 신중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 88, 21	46년생 노고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58년생 예상과는 달리 너무 쉽게 끝나버릴 것이다. 70년생 참된 기적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진력하는 것이 옳다. 82년생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 낸다면 희망찬 미래를 연다. 행운의 숫자 : 92, 61
巳	53년생 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인지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65년생 상대의 속사정은 따로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77년생 갑자기 서두르다면 무리가 따를 것이다. 89년생 과거의 행적과 연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72, 01	47년생 꼭 만나야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니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보라. 59년생 꼼꼼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쉽게 풀거뭇어질 수 있다. 71년생 실질적인 면을 우선해야겠다. 83년생 느낌만으로 판단한 것이 잘 맞아 떨어질 수다. 행운의 숫자 : 29, 9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